

봉건사회초기의 순장은 노예사회의 잔재

김 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순장은 노예주를 장사지낼 때 노예들을 함께 파묻던 노예사회의 잔인한 풍습입니다. 물론 순장법은 봉건사회초기에도 일부 있었지만 그것은 노예사회의 잔재라고 보아야 합니다. 순장은 어디까지나 노예소유자사회에 고유한 풍습입니다.》(《김정일전집》제2권 298페이지)

순장은 노예소유자사회의 고유한 풍습이었다.

순장은 노예사회에서 노예주가 죽으면 인신적으로 예속되어있던 노예들을 함께 파묻어죽이는 잔인한 매장풍습이었다. 순장은 원래 원시사회말기에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생겨났다. 노예제국가가 성립되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한 순장은 그 발전기에 들어서면서 보편화되었다.

야만적이고 잔인한 매장풍습이었던 순장은 그를 반대하는 노예를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그 말기에는 제도적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노예사회의 고유한 반인민적제도였던 순장은 봉건사회의 초기에도 일부 나타나는것을 볼수 있다.

이 글에서는 봉건사회에 존재한 순장이 노예사회의 잔재라는것을 몇가지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론증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봉건사회초기의 순장이 노예사회의 잔재라는것은 그것을 하나의 제도로서 장려하던 고대시기와는 달리 이 시기에 와서 《비례》(非禮), 《불량》(不良)으로 인정하고 금지하는 국가적조치가 취해진 사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우리 나라 초기봉건국가들인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순장을 금지하는 국가적조치들이 여러차례 취해졌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248년 동천왕이 사망하였을 때 일부 신하들이 그를 따라 《순사》(殉死, 따라죽는다는 의미)하려고 하였는데 새 왕이 그것을 <비례>라고 하여 금지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삼국사기》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 22년조

고구려에서는 강제적인 순장방법이 아닌 왕을 위해 죽는다는 《자살순사》까지도 《비례》로 취급되었으며 국가적조치로 그것을 금지시켰다. 이것은 고구려에서 순장이거나 《순사》가 제도적으로뿐아니라 풍습상으로도 인정되지 않았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자료와 함께 고구려시기의 무덤에서 순장이 나타난 례가 없다는 사실은 당시 고구려에서 순장이 합법화되지 않았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순장을 금지한 사실은 신라의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봄 3월에 령을 내려 순장을 금지하였다. 전에는 왕이 죽으면 남녀 각각 5명씩 순장하던것을 이때에 와서 금지한것이다.》

*《삼국사기》권 4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3년조

이렇게 우리 나라의 초기봉건국가들인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이전 시기부터 내려오던 순장법을 《비례》로 인정하고 왕의 명령으로 금지하였다.

이것은 순장이 그 이전 노예사회와는 달리 봉건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제정된 제도가 아니였고 더우기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벌어진 현상이 아니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봉건시기에 순장을 《비례》, 《비량》(非良)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은 주변나라의 경우도 같았다는것을 자료를 통하여 찾아볼수 있다.

고대중국에서 봉건관계의 발생기라고 하는 전국시기에 들어와 묵자(墨子 B.C. 468 - B.C. 376)의 《절장론》(節葬論, 장례법을 검소하게 하여야 한다는 논리)이 대두하고 *1 일부 지배층속에서는 순장을 금지하려는 현상도 있었다*2.

*1 묵자는 대체로 전국시기 묵가학파의 주요인물인데 순장을 《비례》로 비난하고 없앨것을 주장하였으며 지배계층들에게 장법을 검소하게 할것을 권유하였다.

*2 전국시기 지배계층 인물들속에서 묵자의 절장론을 받아들여 순장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적인 정식 순장금지조치는 통일적봉건국가시대인 한나라시기부터 취해져 첫 순장금지령은 전한 선제(B.C.1세기 중엽)때에 발포되었다.

물론 금지령이 내린 그 이후시기에도 순장은 비법적으로 종종 나타나곤 하였다. 그때마다 국가적인 금지령을 자주 내려 순장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취해지곤 하였다.

중국에서 봉건시기의 순장금지령은 보다싶이 순장금지령이 전혀 없던 고대시기와는 달리 봉건시대에 이르러 그 초기부터 국가적으로 순장은 없애야 할 비법현상으로 인정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뿐만아니라 일부 순장이 나타나면 금지하고 없애는 과정이 되풀이되어 시종일관 금지의 대상으로 되어왔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봉건시대에 나타난 순장이 고대와는 달리 제도로서 장려된것이 아니라 비합법적인것으로 인정되고 금지되어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다음으로 봉건사회초기 순장이 노예사회의 잔재라는것은 순장이 진행되는 경우에 지배계급의 극히 제한된 인물들속에서 진행되었고 그것이 부분적인 지역에 한정되어있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뒤늦게 봉건국가로 이

행한 신라, 가야지역에서 순장이 나타났는데 그 순장인수는 고대시기 강상 및 루상 무덤에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적었고 무덤 규모도 작았다. 실제로 경상남도의 일부 지방에서 드러난 순장무덤들에 묻힌 순장인수는 보통 2~3명정도이고 제일 많은것(고령 지산동44호분)이 20여명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왜 이러한 지역에서 순장이 일부 남아있었겠는가 하는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신라, 가야지방에서 나타나는 순장은 노예제적잔재로서 일부 귀족세력들에 국한된 현상이었다.

이로부터 신라, 가야지역에서 한때 순장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신라, 가야지역이 초기에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사정과 결부시켜 볼수 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신라와 가야에서는 고구려, 백제보다 뒤늦게 봉건국가가 형성되었다. 신라, 가야지역은 원래 고대국가 진국의 진한, 변한지역으로서 노예제적관계가 오래동안 남아있었다고 말할수 있는 지역이다.

신라의 출현을 전후한 시기에 이 지역에는 봉건적요소를 가진 소국들과 함께 아직 노예제적성격을 띠고있던 수많은 소국들이 존재하였는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소국들이 A.D.2-3세기까지도 일정한 독자성을 가지고있었다. 가야지역에서도 가야련합체가 형성된 다음 개별적인 가야소국들뿐만아니라 변한, 진한계통의 소국이 남아 일정한 독자성을 유지하고있었다. 더우기 《삼국지》한전에 나오는 포로노예제와 관련된 기록*은 진국말기 혹은 신라, 가야의 출현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이 지역에서 노예제적잔재가 많이 남아있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의 지역이나 소국들에서 일부 귀족세력들이 순장을 진행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 《삼국지》권 30 위서 동이한전에 나오는 려사치설화는 신나라 왕망때 지황년

간(A.D. 20-23)에 있는 사실로 되어있다. 이 자료는 다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이 지역에서 포로노예제가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사실을 전해주고있다고 본다.

신라지역에 남아있던 순장은 6세기초의 순장금지령(502년)이나 520년 톨령발포, 년호의 사용 등 봉건통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면서부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가야의 경우에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6세기경에 없어졌다. 이것은 6세기이후에 신라, 가야의 무덤들에서 순장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신라와 가야에서 순장이 존재한 사실은 노예제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나라나 지역에서 순장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봉건시대에 순장이 나타나는 현상은 이웃나라에도 있었다. 중국에서는 봉건사회의 발생초기라고 하는 전국시기에 제후급 인물들을 비롯한 지배계급속에서 적은 규모의 순장이 있었다. 중국에서 B.C. 475년 전국시대부터 A.D. 220년 후한(동한) 말년까지의 약 700년간은 전반적지역에서 봉건사회가 형성, 공고화되던 시기였고 이 시기에 일부 노예제적잔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지역에 적지 않게 남아있었다. 그러다나니 중국의 경우도 춘추전국시기는 물론 순장이 진, 한 시기까지도 남아있었던것이다.

이처럼 봉건시대에는 순장이 제한된 규모에서 극히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말하여 노예제적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일부 순장도 있을 수 있는것이였다.

다음으로 봉건사회초기의 순장이 노예사회의 잔재라는것은 봉건시대에 들어와서 지배계급의 무덤들에 순장법을 대신하는 인형들이 많이 나타난 현상을 놓고도 알 수 있다.

원래 사람을 형상하여 만든 《추령》(벼짚으로 사람이나 말을 형상하고 무덤에 묻

는것)과 같은 인형을 파묻는것은 고대시기에도 있었다. 이러한 인형들은 무덤에서 순장을 대신하여 주인공의 껍묻거리로 리용되였다. 고조선시기의 나무말이나 고대중국에서 류행되였던 《추령》, 고대에쥘트의 제3왕조(고왕국시기)시기의 무덤들에서 나오는 부장인형 등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사실 순장은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와 같이 권력과 재부를 누리려는 지배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출현하였다. 따라서 노예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자기들이 생존에 부리던 노예들을 대량적으로 순장하였으며 봉건사회에 와서까지도 그러한 관습이 계속 남아있었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요구는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노예를 비롯한 피착취인민대중의 투쟁에 부딪치게 되며 이로부터 참혹한 순장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그를 대신하는 인형 같은 것으로 대체하게 된것이다.

봉건시대에 들어서면서 순장을 대신하는 인형들은 전시기에 비해 모양이 다양해지고 수량이 부쩍 늘어나게 되는것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지역에서 5세기 후반기 순장을 대신하여 무덤들에 사람을 형상한 인형을 껍묻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경주시 화성동석실무덤이나 룡강동석실무덤에서 나온 인형이 그 실례이다. 화성동석실무덤에서는 측근, 비첩 등으로 추정되는 녀인상 2개, 남자상 3개가 나왔다.

중국에서는 전국시기 이후 사람을 형상한 여러가지 형태의 토용, 도용, 목용이 급격히 늘어나 산사람을 순장하는 방법을 대신하였다.

특히 유명한것은 서안에 있는 진시황병마모용갱인데 여기서는 당시 그의 측근신하와 무사들을 형상한 많은 수량의 인형들이 출토되였다. 중국력사에 진시황이라고 하면 자신을 소위 하늘의 태양에 비

기고 자기 말은 곧 법으로 간주하며 천하를 호령하던 폭군이였다. 그러나 폭군도 자기의 병마모용갱에 생전에 부리던 많은 군사들을 순장할수 없으므로 수많은 토용인형으로 대치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진시황릉에서 1km나 떨어진 병마모용갱에 묻힌 수천여개의 토용《무사인형》들은 진시황을 위하여 순장 아닌 《순장》을 당한셈이다.(복원한 토용인형은 모두 7 000여개라고 한다)

죽은 노예주를 위하여 산사람을 강제로 죽여 파묻던 순장법이 인형(용)으로 대치된것은 순장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바로 이렇게 순장이 살아있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사람을 형상한 대치물로 바뀐것은 야

만적인 순장법을 공개적으로 시행할수 없을 정도로 인민대중의 투쟁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노예제적인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노예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의하여 노예사회는 붕괴되어가고 노예를 기본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던 순장은 제도적으로 점차 쇠퇴되어갔다. 봉건사회초기에 들어와서 순장은 일부 진행되는 경우에도 산사람으로 강행되던 노예사회와는 달리 그 대상이 점차 대치물로 바뀌거나 이후에는 완전히 없어졌다.

봉건사회의 초기에도 순장은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인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철저히 선행한 노예사회의 잔재였다.